

# 영원한 금서는 없다

서양의 금서 이야기 — 1

주명철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위험한 책도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당시에

위험하다고 배척당한 책 속에서 아무런

공격성이나 외설성을 느끼지 않는다.

특정금서는 그 시대 속에서

이해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무엇을 금서라고 생각할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이념서적을 맨처음 떠올리거나, 최근 있었던 법적 제재와 관련하여 '음란서적'을 머리 속에 그릴 것이다. 박정희 독재 시절에는 《사상계》 같은 정기간행물도 꺾박을 받았다. 김지하의 〈오적〉은 죄짓고 잘 사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만들었고, 그 때문에 시인은 모진 고초를 겪었다. 이같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금서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생기거나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짧고 발랄한 왕비가 있다네/아주 근엄한 그의 남편은 제구실도 못한다네/그녀는 가끔 아주 사려깊은 부인으로서/정신적으로 지치고, 육체적으로 제대로 만족하지 못한 채/손으로 작은 일을 했는지./밤에/예쁘고 작은 땅딸막한 몸을 벗은 채, 완전히 벗은 채/숨털같이 부드러운 안락 의자 위에서 /사랑을 전해주는 어떤 손가락을 가지고/낮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시테라의 신을 위해 향불을 태웠는지./아니면/한낮에 지겨워 죽겠다는 듯이/잠자리에 홀로 누워 몸을 심하게 움직이지/그녀의 젓가슴은 꿈틀거리고, 아름다운 눈과 입은/반쯤 벌린 채 부드럽게 시근덕거리지/마치 거만한 난봉꾼을 덤벼들게 하려는 듯/음탕한 태도를 지닌 앙투아네트는/이같은 전주곡에 그치려 하지 않고/루...가 더 잘 해주기를 바



시대에 따라 '위험한 책'은 달라진다. 삽화는 시공사의 《책의 역사》중에서.

랄 거야./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건 강한 능력에 의해/완전한 성불구라고/서너번이나 선고를 받은/불쌍한 나으리/이 불행한 앙투아네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네./널리 입증된 이 불행한 남자/그의 성냥은 지푸라기보다 더 굵지도 않고 /언제나 말랑말랑하고 구부러진 채/주머니 속에만 들어 있기 때문에/그는 여자와 성교하는 대신/돌아가신 안티오키아의 대주교처럼 뒤를 대준다지...”(이하 생략)

## ‘금서’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시를 읽는다

면 그저 서양에서 어느 국왕부부의 사랑이야기를 조금 관능적으로 묘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18세기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 관한 여덟쪽짜리 시의 일부다. 이쯤 말해두면, 눈치 빠른 독자는 프랑스 혁명을 떠올리면서 이 시가 정치적 포르노 그라피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칠 것이다.

1779년에 나온 이 시는 왕이 성적으로 무능한 데 비해 왕비는 육체적 욕망을 주체할 수 없음을 놀리면서, 결혼한 지 8년만에 임신한 왕비의 뱃속에는 루이 16세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기가 들어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 시는 987년부터 800년이나 이어온 카페 왕조의 정통성을 의심하고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시가 나오자마자 파리 치안총감은 작자를 찾으려고 혈안이 됐다. 이 짤막한 시는 사람들이 소지하기 알맞게 작은 판으로 제작된 인쇄물에 실려 널리 퍼졌다. 그렇다고 한번 세상에 나온 것을 어찌 뿌리 뽑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인쇄술 덕택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부수가 제작돼 유통됐음에라.

이 시는 우리에게 금서에 관해 생각할 거리를 준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시를 담은 인쇄물이 한때 추적당했고 읽는 일도 금지됐다면, 어찌서 오늘날에는 추적당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진실에 대한 확인인 만큼 더욱 어리석게 보인다. 우리는 어떤 책이 금서가 될 때 그 시대 속에서 그것을 봐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금서는 없다. 단지 특정시대나 문화 속에서 박해받는 금서가 존재할 뿐이다. 금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인간 관계,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서 이야기를 꺼내려면 책 이야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책이 실어나르는 내용(글이나 그림)은 물론, 그 내용을 실어나르는 책을 읽는 행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저자는 책이 아니라 글을 쓰며, 그 글은 그것을 이용하기 좋게 책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따라서 여러가지 물질적 형태를 부여받으며 독자는 여러 형태의 물질을 매개로 해서 저자

의 생각과 만나 그 의미를 파악하거나, 제 나름대로 의미를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책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인쇄물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이나 인쇄물에 담긴 내용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책방에 제아무리 훌륭한 책이 즐비하게 꽂혀 있다 해도, 뭔가 찾으려는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 뒷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벽지와 다를 바 없다. 책방에서 진열대에 깔아놓은 책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집어서 펼쳐들 때 저자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전달하게 된다.

### 의사소통의 열개 밖에 있는 글

그런데 책을 읽는 사람은 거기 담긴 저자의 생각을 곧이 곧대로 믿지 않으며, 설사 믿는다손치더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글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고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며, 그의 글을 읽고 그 내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모방하려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말과 글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은 공권력의 지도노선을 따르지 않는 내용을 의사소통의 열개 밖으로 쫓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그런 글이 독자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마 18세기 프랑스의 래티프 드 라 브르톤느의 작품 《니콜라 선생》의 말에 공감할 것이다. 니콜라는 사랑하는 제피르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금욕하며 지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아침, 그가 아직 침대에서 몽개고 있을 때, 몰레라는 친구가 성직자의 세계를 다룬 음란서적 《동부그르》를 가져왔다. 그는 책읽기에 빠져 제피르까지 잊어버렸다. 20여쪽을 읽자, 몸이 달아올랐다. 그런데 마농 라베르뉴가 세탁물을 배달하러 왔다. 그는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별로 저항하지 않았다….

니콜라는 마농이 간 뒤에 다시 책을 읽었다. 30분쯤 뒤 여동생 마르고의 친구인 세실 드쿠시가 왔다. 얼마 있으면 결혼할 세실에게 니콜라는

영원한 금서는 없다. 단지 특정시대나 문화 속에서 박해받는 금서가 존재할 뿐이다.

금서 이야기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풀어야 한다.



금서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 삽화는 시공사의 《책의 역사》 중에서.

격렬하게 몸을 날렸다. 세실은 저항하다가 마침내 허락했다. 니콜라는 또다시 책을 읽었다. 거의 45분이 지난 뒤, 테레즈 쿠르뷔송이 웃으면서 들어왔다. 그녀는 니콜라를 애무하러 왔던 것이다. 니콜라는 그녀의 눈치를 살피다가 한손으로 잡아 자기 밑에 놓았다. 그녀는 몸을 빼더니 문을 열어놓은 채로 나갔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니콜라는 제피르나 데려올까 생각한다. 그런데 마침 누가 문을 긁는다. 제피르일까. 아니 그것은….

니콜라 선생은 18세기에 계속 추적을 받았지만 거듭 출판됐던 《동부그르》를 읽으면서 자기가 알고 지내는 여성과 재미를 보는 광경을 머리속에서 그린다. 그가 책을 읽는 동안 들어온 여자들은 그의 상상 속에서 그를 만족시켰다.

### 위험한 책, 배척당한 책

“이것이 관능적인 글을 읽을 때 얻는 효과다. 그러나 나는 앞서 말했던 책보다 훨씬 더 위험한 책을 알고 있다. 그것은 《취스틴느》다. 그것은 사람을 잔혹하게 만든다. 당통은 흥분하려는 목적에서 그 책을 읽었다.”

여기서 우리는 ‘위험한 책’도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권력의 눈에는 체제의 지도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면 모두 위험하게 보이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당시에 위험하다고 배척당한 책 속에서 아무런 공격성이나 외설성 따위를 쉽게 느낄 수 없다. 그러므로 특정 금서는 그 시대 속에서 이해해야 마땅하다. 이런 뜻에서 금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역사적 배경과 함께 풀어야 할 것이다. ●